

“체류 신분 문제,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인터뷰까지 변호사가 직접 챙기는 <천관우 변호사그룹>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체류 신분 문제로 남모르게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위해 굳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로는 불법체류자가 돼 마음 졸이며 미국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누군가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면 그저 부럽고 부러워서 스스로도 자신의 처지가 안쓰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능력 있는 이민 전문가를 만나면 로또 아닌 로또,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 천관우 변호사

“저는 변호사 개업 전부터 이민 실무를 익혔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서류 작성에서부터 인터뷰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챙깁니다. 이민국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면 인터뷰 가기 전 리허설도 의뢰인과 제가 직접 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것은 저의 일 처리 습성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찾은 사람들의 통역도 맡아 이민국 출입을 빈번하게 한 까닭에 인터뷰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다. 또 서로 잘 아는 이민관들도 많아 케이스별로 접근하는 데에도 타 변호사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민국에서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과 항소를 통해 높은 승인률을 자랑한다.

특히 해외에서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 와중에도 작년 여름

에 중국본토의 시민권자 의붓 미성년 자녀의 케이스를 승인 받아 올해 초에 그 시민권자의 미성년 의붓자녀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무사히 입국했다.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도 한국계 시민권자들의 각 배우자들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작년 말과 올해 초 영주권자로 입국했다.

최근 이민개혁입법이 추진되면서 불체자 구제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천관우 변호사는 과거 부분사면(245 (i)) 케이스들과 추방유예(다카-DACA) 케이스들을 오랫동안 다루어 오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노하우들로 축적해 왔다. 이런 그의 노하우들로 천관우 변호사는 앞으로 있을 불체자 구제에 있어서도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프로디 학교 관련 케이스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프로디 관련 범죄 기록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던 케이스들을 단순한 답변서로 승인을 받아낸 경우도 있고 601 면제라는 절차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면제 받아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다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범죄 행위로 1년 6개월 감옥을 다녀온 경우에 이 면제를 통해서 서울에서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영주권자로 입국한 사례도 있었다.

LA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한인들의 이민 관련 일을 해오고 있는 천관우 변호사(사진)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만은 전문가 가운데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이민 관련 일을 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 취득 전 수년 동안 유대인 이민 전문 변호사 아래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익혔다. 그가 지금 이민 전문 변호사가 되는 데는 그때의 실무 경험이 큰 힘이 됐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은 물론이고 그 전부터 이민 케이스별 실무에 능통했던 것이다.

법인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전 대기업 CFO
오랜 실무경험
공인회계사
오승윤

- Income Tax Return ■
- Corporation Set-up & Dissolution ■
- Tax Planning Service ■
- Tax Audit Representation ■
- Payroll Services ■
- Sales Tax Return ■
- 사업체 분석 ■
- Accounting System 상담 ■
- Member of C.S. ■

714.522.1120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편

Michael S. Oh CPA

시민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시민권 신청 시에 영주권의 적법성을 따져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고 영주권까지 위협해 지는 사례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도 천관우 변호사는 이민국에 적절한 답변을 통해서 많은 승인을 얻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 문의
-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영 김 연방하원의원, PPP연장 법안 발의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영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방하원 스몰비즈니스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블레인 루크메이어 (공화), 니디아 벨라스케스 (민주),

캐롤린 보르도(민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이달 31일 만료 예정인 2차 PPP의 시행을 오는 5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재개장하기 위해 그들에게 생존의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코로나19 구호기금이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대출 기관들이 PPP 신청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벨라스케스 의원은 “현재 PPP 대출 수요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와 코로나19 여파로 스몰비즈니스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 라면서 “이 법안이 스몰비즈니스 직원들을 지원하고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Implant \$1,700 \$1,200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잇몸치료 \$600 \$400	틀니 \$1,500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